▶▶ 매일 INDEX

5면
산단 입주기업과 탄소중립 선도도시 '맞손'

전주매일

2024년 4월 19일 금요일 (음 3월 11일) 제348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함께 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전시부스 운영·축하공연 등 행사 풍성… 유공자 표창도

김관영 도지사 "차별·편견 사라지도록 지속 노력할 것"

18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자리를 함께한 장애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함께 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주제로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장애인의 날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장애인의 날 기념식 조직위원회와 전북여성장애인연대(대표 유시선) 주관으로 치러졌으며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서거석 교육감, 도의원, 김양옥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장 등 유관기관 단체장들, 장애인과 가족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올해 44회째인 기념행사는 장애인으로 구성된 따박밴드, 태권도 시범단, 난타공연 등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장애인 인권선언문 낭독, 장애인 인권신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 및 공로패 수여로 이어졌다.

유공자 표창으로 김양옥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소장이 공로패 수여받았으며, 김선례씨가 도지사 표창, 임종무씨가 전북자치도의회 의장 표창, 김복순씨가 교육감 표창, 정휘상씨가 조직위원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또한, 국제로타리3670지구에서 기부한 1,000만원의 장학금을 15명의 장애가정 및 장애학생에게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전북자치도는 예년과 다르게 장애인이 직접 주관하고 참여해 즐기는 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 다양한 전시부스를 운영하고 각 단체별 노래, 플롯연주, 댄스 등 흥겨운 장기자랑의 시간을 마련했다.

부스 운영의 주요내용은 △장애인 인식개선 체험(도립장애인복지관) △보조기기 전시·점검(장애인보조기기센터) △장애인생산품 전시·판매(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홍보(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홍보(장애인인권연대) △장애인 여행 지원사업(초록여행) 홍보 등이다.

유시선 전북여성장애인연대 대표는 기념사를 통해 "모든 장애인들이 장애와 성별의 차별 없이 평등한 대우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장애인의 인권 강화는 물론 차별과 편견이 사라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재활·자립을 도울 전북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이틀 전 개소했다"며 "하반기부터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사업을 펼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잘사는 전북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선수의 입장서 선수를 최우선'

정강선 파리올림픽 선수단장 "팀 코리아 위해 헌신"

파리올림픽 선수단장으로 선임된 정강선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회장.

"국가대표 선수들이 후회없이 최고의 경기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제33회 파리 하계올림픽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 단장으로 선임된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정강선 회장은 18일 '팀 코리아'를 위해 헌신·봉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결전지인 프랑스 파리로 출국하기 전까지 대한체육회와 함께 올림픽 규정과 요강, 파견 지원 현황, 선수 컨디션 등 일체의 업무를 꼼꼼히 챙겨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준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안전'이 최우선인만큼 대회 기간 선수단에 발생 가능할 위기를 파악, 위기 예방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해 안전 올림픽으로 이끌 예정이다.

그는 선수단장이라는 중책에 맞게 '선수의 입장에서 선수를 최우선'을 가치로 내걸고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뉴시스

닭고기·돼지고기 전문 육가공 공장 정읍에 준공

유피에프앤비, 고용인원 60명·1일 25톤 생산 가능

김 지사 "지역경제 활성화·안전 축산물 공급 기대"

닭고기와 돼지고기 전문 육가공공장인 ㈜유피에프앤비 공장이 준공됐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18일 정읍시 신태인소재 신용육가공전문농공단지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송금현 정읍부시장, 기업 임직원과 계열사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이 개최됐다.

〈관련사진 3면〉

㈜유피에프앤비는 지난 2022년 정읍시와 공장 신설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총 사업비 350억원을 투자해 대지 3만5,000㎡, 연면적 4,212.3㎡ 규모로 2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지난 3월 완공했다.

㈜유피에프앤비 육가공공장에서는 닭고기와 돼지고기 등의 원료를 사용해 다양한 육가공제품을 하루에 25톤 생산가능한 설비를 갖췄으며, 지역인력을 60명 가량 고용하고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유피에프앤비 육가공 공장의 준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피에프앤비 고한주 대표는 "철저한 위생관리와 원재료 선별로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 공급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유피에프앤비의 모회사인 ㈜다솔은 연매출 6,300억원에 종사인원 630여명의 축산물 도축·가공·유통전문기업으로 전북특별자치도내 6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 전북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30일까지 모집

특별자치도 출범 후 첫 공모… 22일 설명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사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30일까지 모집한다.

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추진 방향으로 지역소멸, 양질의 일자리, 문화·복지 인프라 부족 등 전북이 당면한 지역사회문제를 창의·혁신적으로 해결할 기업을 중점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진입을 장려하기 위해 도지사가 지정하며 3년간 △공공기관 우선구매 △도 지원사업 참여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받게 된다.

지정 요건으로는 조직 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우수 사업모델 등이며 제도 전반에 대한 신청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22일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군산시 대학로 600)에서 공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포털(seis.or.kr)을 통해 소재지를 두고 있는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신청기업에 대해 시군 및 고용관서와 합동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심사위원회를 거쳐 6월 중 선정기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에게는 사회적경제 거점 공간인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해 사무공간, 시제품 제작 및 라이브 커머스 등이 지원된다.

천세창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갖춰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